

목회의 프락



정웅영 목사
청운성교회 담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1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외로워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어떤 여자가 평생 사골교회 목사의 아내로 산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나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돌보는 딸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나 죽으면 너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사니? 이 서방하고 살면 되지 ...

이 서방 죽으면 너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사니?

엄마, 걱정하지 마. 외로워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외로워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힘들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아파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어려워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평생 청빈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에이든 토저(Aiden Wilson Tozer)목사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의 대부분은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자신의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외롭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외롭지 않아도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외롭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렵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과정은 깊은 고독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양 떼를 돌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렘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하던 중에 천사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사십 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소생하는 것도 외로움을 통해서였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아라비아 사막 깊은 곳에 들어가 홀로 3년을 보내며 자신의 영혼을 순화

했던 것도 외로움의 과정을 겪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상황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에는 반드시 외롭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외로움은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온갖 것을 다 찾고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에 지배받는 일상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 진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주의 추천음반

아티스트 : 다윗의 노래 편집부 | 기획 : 다윗의 노래 (:한국)



‘영으로 찬양 베스트’ 시리즈를 출간했습니다.

영으로 찬양 베스트 5 (큰글씨) (Spiritual Praise Songs Best 5 Big)

‘영으로 찬양 베스트’ 시리즈를 출간하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사 43:21)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예배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번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집 ‘영으로 찬양 베스트’ 시리즈를 출간했습니다.

이 찬양집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언제 어디서든 부를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곡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이 불리는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집이 영적으로 점점 메달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집을 통해 우리의 찬양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있어서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으로 찬양 베스트’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시 150:5)



지난 7여년 동안 미션21에 글을 써 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고, 교회 안에서도 세대와 세대, 교단과 교단 사이의 간격이 커져만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은퇴와 위임을 통해 세대가 교체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는 찬양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회복하며, 하나 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예배의 일부가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현재 저는 전주에 있는 아이노스 선교교회에서 꾸준히 목요 찬양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지역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교단과 직분을 넘어 사랑과 통합, 화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우리 사용하소서’ 단순히 회복을 경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와 통합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구하는 곡입니다.

이 곡들을 함께 부를 때, 우리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하나 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미션21에 원고를 써 온 지난 7년을 돌아보면, 때로는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금 돌아오는 주제는 ‘찬양과 회복’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도구이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언어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회복과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배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아이노스(Ainos)’라는 이름으로 찬양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노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남미, 동남아,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을 오가며 찬양과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일을 해 온 것입니다.

사역을 이어오면서 저는 찬양의 본질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자, 서로의 상처를 감싸는 언어이며,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끈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세대 간의 벽은 허물어지고, 교단의 차이는 희미해집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통합’이라는 화두를 불

모읍니다.

목요 찬양은 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자, 지역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귀한 통로입니다. 찬양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기도 가운데 서로를 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저는 이 모임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회복과 하나 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찬양과 회복을 노래하는 곡들》

이 주제를 더 깊이 나누기 위해, 저는 몇 곡의 찬양을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곡들은 목요 찬양 자리에서도 자주 불러지고, 회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교단과 세대를 넘어,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곡입니다. 단순한 가사와 멜로디 속에 담긴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이동영 목사
아이노스 찬양선교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1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 신혜란 목사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헌약,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통신과정

1. 시간, 지역,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사망자는 통신으로 전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를 거쳐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2. 능력별로 이수하므로 조기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365일 언제나 입학가능! 실패, 학비, 나이 학력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세요!